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선정 연기...유치전 고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월로 늦춰
3파전 고흥·순천·창원 ‘분주’
접근성·정주·확장성 등 어필

한국형 우주발사체 생산시설인 단조립장 입지 선정이 연기되면서 유치에 나선 지자체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이던 우주발사체 단조립장 후보지와 관련해 유치 희망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진 점을 감안, 입지 선정을 4월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누리호 고도화 사업 발사체 총괄 주관 제작 사업을 수주했고, 올해부터 항공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3차 발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4차례에 걸쳐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두 차례 쏘아 올린 누리호는 경남 사천에 소재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단조립장에서 조립·제작했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기술 이전을 받음에 따라 새로운 단조립장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3월 초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입지

선정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확정하고 전문가 3인으로 평가단 구성을 마쳤다.
지난 3일에는 단조립장 유치를 신청한 고흥군·순천시·창원시로부터 평가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본격적인 입지 선정 절차에 착수했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 한화방산의 국방 위성 발사체 시설 조성까지 염두하고 입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지 선정 발표가 연기되자 유치전에 나선 지자체들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졌다.
2년 전부터 유치전에 뛰어들고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발사장을 갖추고 있고, 지난해 12월 국가 우주산업클러스터로 지정된데 이어 최근에는

정부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에도 포함된 점을 부각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우주발사체 개발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2030년까지 국비 3,500억원을 투입해 민간발사장, 연소시험장, 조립동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단조립장 제안 부지는 발사장 바로 인접 부지여서 신속·안전하게 발사체를 운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순천시는 발사체를 해상으로 고흥까지 운반할 수 있는 율촌항이 있는 율촌1산단을 후보지

로 내세우고 있다.
저렴한 땅값에 전력, 용수 공급이 충분하고 인프라 확장이 가능해 추후 우주항공산업 배후 클러스터 조성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본사가 소재한 창원시는 가포신항 배후 단지를 제시했다. 가포신항에서 발사체를 실어 배길로 나로 우주센터로 수송한다는 계획이다.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40개 업체 중 6개사가 창원에 있고 재료연구원과 전기연구원이 있어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이 유리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후보지 3곳을 비교하면 고흥은 발사체 운반 등 접근성에서, 창원은 협력업체 지원과 근무자 정주 여건, 순천은 산업용지 확보와 확장성에서 각각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근산 기자



광주교대 허승준 총장 취임식
강기정 광주시장이 30일 오전 광주교육대 풍향문화관 하정웅아트홀에서 열린 제8대 허승준 총장 취임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 고병원성 AI 고비 넘겼다

농장 등 634곳 일제검사 ‘음성’
철새 북상시기 바이러스 요주의

지난해부터 기승을 부렸던 전남지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까지 9일간 도내 닭 337개 농장, 오리 20개 농장, 메추리 5개 농장, 전통시장 91곳 등 총 634곳에 대해 AI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신속한 시료 채취와 검사

를 위해 시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전남도본부, 민간 수의사 등을 휴일 없이 매일 40~60명을 투입했다.
특히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 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차량은 거점 소독시설에서 꼼꼼히 소독하고 농장 입구와 50m 떨어진 지점에 주차한 후 1회용 방역복과 신발을 착용하고 1일 1~2 농장 방문 원칙을 지키며 검사가 진행됐다.
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이뤄진 634곳 모두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전도현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난 1

월 보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등 전반적인 위험도는 낮아졌으나, 3월에 타 지역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과거 철새가 북상하는 시기 야외에 남은 바이러스에 의한 발생 사례가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방역수칙은 출입 차량과 사람 통제, 매일 농장 내의 소독, 축사 출입 시 방역복 착용과 전용 장화 갈아 신기, 축사 바닥 로터리 작업 시 장비 소독, 바람 불 때 환기창 닫기 등이다.
전남도는 AI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연인원 6,600명을 동원해 일제검사 3회(1,919호) 등 총 9,272호, 12만2,000건을 검사해 26건을 확진, 긴급방역 조치를 진행했다. /정근산 기자

조오섭, 광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30일 “‘광통·전세사기 구제법(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광통전세,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자력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매입 기관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채권매입 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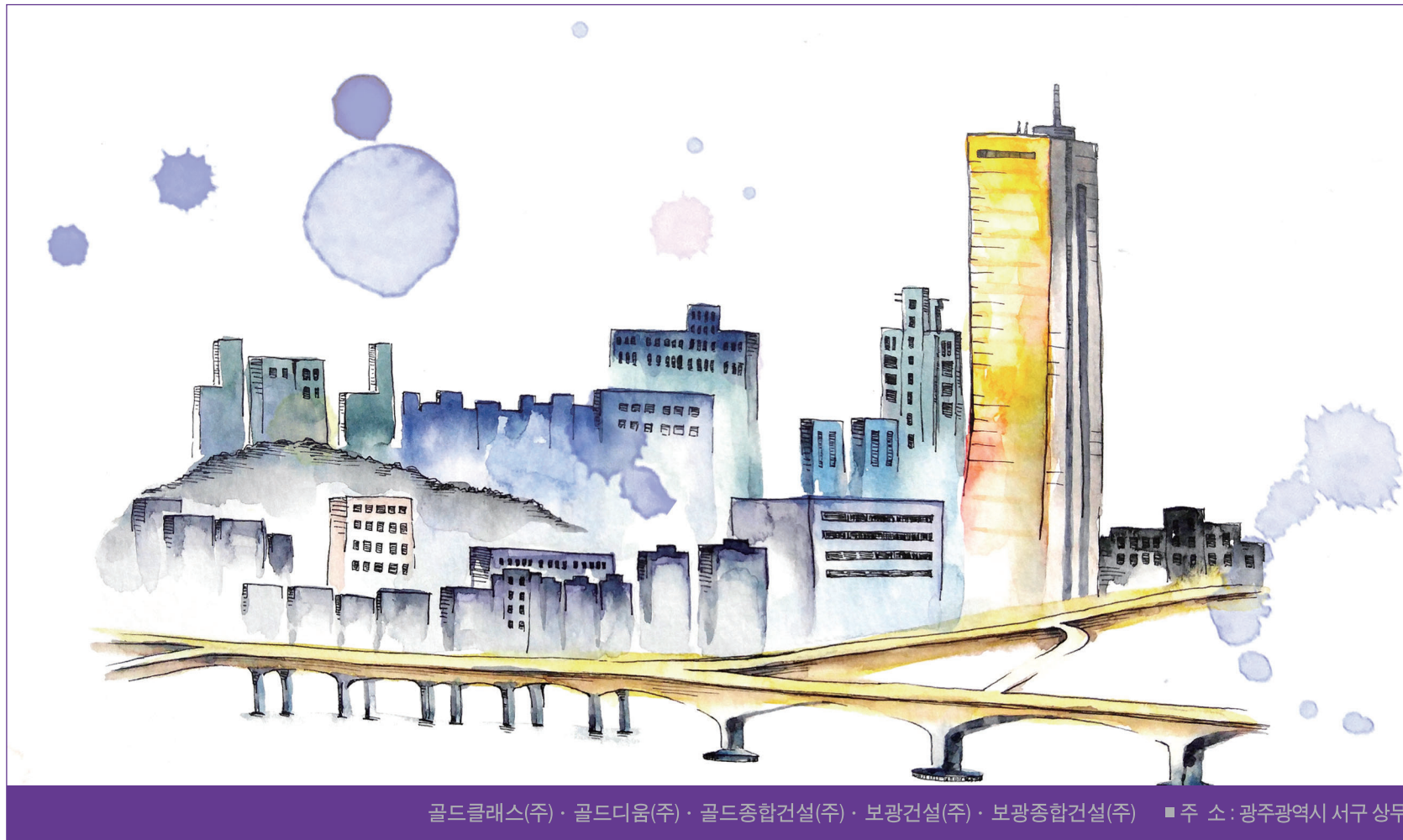
보호대책 적용대상은 임대차 종료후 1개월 이상 보증금이 미반환되거나 광통주택, 전세사기 등 피해 임차인이다.
조 의원은 “장기간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 등과 협의 했던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 농민 팽개친 무책임 행태”

민주 전남도당 강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30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공식 건의와 관련해 “농민과 농촌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당은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위 당정협의회 후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공식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쌀 공급과

잉문제와 과도한 예산투입 우려는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억지이자 농촌과 농민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태다”며 “공급과잉 문제와 과도한 예산투입 우려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통해 해소가 가능함을 설명했음에도 쌀 시장격리에 예산이 집중돼 다른 품목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처럼 사실관계를 분명히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도당은 특히 “어렵게 농촌을 지켜오고 있는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에도 여전히 정쟁수단과 색깔론으로 포장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강력한 농민 저항운동에 직면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단호히 거부하며, 농촌과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